

내달초까지 5~6명 탈당대열 합류

'탈당 독' 터진 與 광주·전남 의원들 행보

우윤근·주승용·유선호·양형일 의원 등 5~6명 내달 초까지 합류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자 목포 출신인 천정배 의원이 28일 탈당하면서 이어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이 오는 30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탈당 등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건 전 총리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구심점을 잃고 있는 지역 정치권은 여당별 탈당 정국이 물고 물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을 중심으로 강경 신당과 5~6명은 29일 중앙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월 10일을 전후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우윤근 의원은 친 정동영 계파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천정배 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늦어도 다음달 5일을 전후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한길 원내대표와 노선을 함께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여수)도 조만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대표직을 사퇴한 뒤 2월 초순께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의원의 탈당 시점도 이를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

는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의 탈당도 점쳐지고 있다. 당초 유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김근태 의장 계열이라는 점에서 당장 탈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강하다.

그러나 유 의원이 민평련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경경한 신당파인 데다 그동안 '선도 탈당'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다음달 10일 이전 탈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희망 21'의 대표인 양형일 의원(광주 동)도 다음달 10일 이전 탈당 가능성이 높다. '실사구시', '국민의 길', '안개모' 등 소위 신당과 상향 의원 모임에서 탈당 시기를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 탈당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태홍 의원(광주 북)을 포함, 전당대회 이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이라는 점에서 탈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강하다.

그러나 유 의원이 민평련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경경한 신당파인 데다 그동안 '선도 탈당'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다음달 10일 이전 탈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에 따라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이전 탈당은 어려울 전망이다지만 원만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영호(완도·강진), 강기정(광주 북갑), 서갑원 의원(순천)의 경우 지역 여론을 감안, 전당대회를 통한 질서있는 대통합 신당 창당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 사수쪽에 가까운 입장이어서 조기 탈당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참여정부에서 문광부 장관을 지내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와중에 몰려 있는 정동채 의원(광주 서)도 당장 탈당의 명분을 찾기 어려운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지향적 민생개혁세력의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당의 품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창당 주역'... 차기 대선 '잠룡'

■ 탈당 선언 천정배의원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통합신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천정배 의원은 우리당의 대표적인 '창당주역'으로 꼽힌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현역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 편에 섰던 천 의원은 대선승리 이후엔 신당창당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분당과 창당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장, 신기남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천·신·정 트리오' 가운데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낸 인물도 천 의원이었고, 17대 총선 직후엔 원내대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학법안, 과거사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면서 원칙론자라는 의미의 '탈레반' 별칭도 얻었다.

4대 개혁입법 추진이 실패한 직후 스스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천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 법무부장관으

로 임명되면서 차기 대선레이스의 '잠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장관 재직시절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지휘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입각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당에 복귀한 천 의원은 "우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당의 재건을 주장했고, 이후 예비주자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천 의원은 특히 통합신당 논의가 당 사수파의 반발로 정체될 조짐을 보이자 "단순히 우리당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떠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때가 아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당 안팎에선 천 의원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범여권의 차기주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탈당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천 의원이 28일 탈당을 결행하자 당내 일각에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탈당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매서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젠 實利다

(9) 참을수 없는 우리의 통명스러운

불친절한 말 한마디 오는 관광객 내쫓는다

경남 마산에서 가족과 함께 최근 목포를 찾은 관광객 A(42)씨, 시내버스를 타려다 봉변을 당했다. 목포 방문이 처음인 A씨는 버스 노선을 몰라 버스 운전사에게 버스의 행선지를 물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는 "안 가요"라는 통명스럽고 딱딱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곧바로 떠났다.

A씨는 "뭐 이런 운전사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버스 운전사에게 또 다시 행선지를 물었다.

하지만, 이 운전사는 A씨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노선표도 안 봐요"라는 운전사의 통명스러운 대답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대중 관광을 한 뒤 애초 계획했던 2박3일의 일정은 1박2일로 줄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A씨는 전남도 홈페이지에 버스 운전사들의 불친절과 통명스러움에 대해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 여름 휴가차 가족과 함께 목포를 찾은 서모(40·대구시)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목포 외담도관광지 매표소에서 당한 일이다. 카드 결제를 원하는 서씨에게 매표원은 "수표나 카드는 안 된다. 현금으로만 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서씨는 "명색이 관광지에서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대하니 다른 곳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시는 전남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쯤이면 지역 주민들의 통명스러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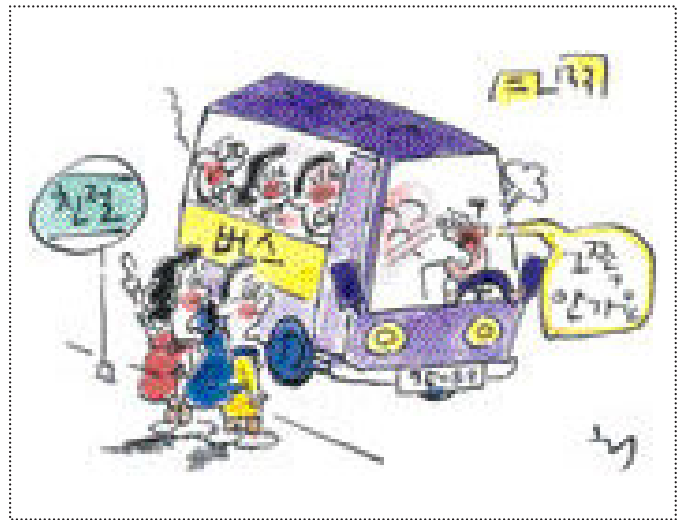
대한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교통·숙박·음식점 등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서비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통명스러운 태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정책을 내놓는 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산업 최 일선에서 이들을 반기고 맞아줘야 할 대중교통·음식·숙박업 종사자 등의 불친절과 통명스러움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광객 유치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G여행사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친절과 상냥함"이라며 "전라도 특유의 통명스러움도 있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활성화와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행정 지도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2~3년 사이 외지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도 관광객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가철 끝나면 불만 목소리 줄이어서 지자체 등 관광객 유치 노력 '찬물'



주승용의원 등 몽골·카자흐서 여수박람회 유치활동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국회 건설통위원회의 소속 의원 3명이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잇달아 방문해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였다. 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의원 3명은 몽골에서 유치활동을 마친 뒤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카자흐의 수도 아스타나로 이동해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올해 12

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유치결정을 위한 표결 과정에서 한국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의원은 27일엔 마지막 방문국 우즈베키스탄을 들러 1박2일 일정으로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린장례식장

2007년 1월 29일

332-3101

그린농업연구소(주) 본사

금남로 남선빌딩 201호 확장이전개소!!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불2-3만원 특가로 복잡한 장례준비 걱정 끝!!

1.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2.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3.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4.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5.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6. 장례식장 임대료 부담 없이 장례식장 사용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무료

그린농업연구소(주)
 대표: 김대중
 332-3101